



## 정표화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ressive in Korean Language by Clarifying Its Scope and Contents

---

저자 (Authors)	정중수, 신아영 Jeong Jongsu, Shin A-yeong
출처 (Source)	<a href="#">인문과학연구 36</a> , 2013.3, 259-286 (28 pages) <a href="#">STUDIES IN HUMANITIES 36</a> , 2013.3, 259-286 (2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a> Institute of Humanities at Kwangwon National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27173">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27173</a>
APA Style	정중수, 신아영 (2013). 정표화행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6, 259-286.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182.*** 2018/08/28 15:1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정표화행에 관한 연구

정 종 수 · 신 아 영  
(세종대학교)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의 정표화행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범위를 밝혀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정표 화행이란, ‘화자가 사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청자가 이에 대하여 감정이입되기를 기대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감정이란, 행복, 분노, 두려움, 놀람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에 대해 상대가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감정을 수반하여 발화할 때, 그 행위가 바로 정표화행이다.

정표화행은 진술, 명령, 청유, 약속과 함께 하나의 주요 화행으로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표화행은 기존 화행 분류에서 주요 화행으로 나타내고 있고, 독특한 응대 양식을 가지고 있고, 화행 분류체계상 감정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화행과 대립되어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요성을 띠는 정표화행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혔다. 첫째, 정표화행은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혐오, 공포의 6가지 하위화행과 그 각각의 하위화행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표화행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인간의 정서가 기준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쁨, 놀람,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을 기본 정서로 보았고,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살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품사인 감탄사와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동사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둘째, 정표화행이 적정조건을 갖는다는 점을 Searle의 적정조건에 비추어서 제시하였다. 셋째, 정표화행의 수행을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정표화행의 직접화행은 감정을 나타내는 품사인 감탄사를 통하여 나타났고, 정표화행의 간접화행은 주로 진술·질문·명령 형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표화행의 응대 화행까지 살펴보았다. 정표화행의 응대화행은 공감, 비공감 화행으로 나누었는데, 응대화행의 공감 화행은 진술, 정표화행으로 간접화행이 나타났고, 비공감 화행은 진술, 정표, 질문 화행으로 간접화행이 나타났다. 감사·사과 화행의 응대는 그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데, 비공감화행이 더 공손함을 보였다.

### □ 주제어

정표화행, 정서, 화행, 화행분류, 적정조건, 직접화행, 간접화행, 요구화행, 대화행, 감탄사

## C ontents

1. 서론
2. 정표화행의 범위
  - 2.1 정표화행의 구성
  - 2.2 정표 화행의 적정 조건
3. 정표화행의 실현
  - 3.1 정표 화행의 직접화행
  - 3.2 정표화행의 간접화행
4. 정표 화행의 응대 화행
  - 4.1 공감화행
  - 4.2 비공감화행
5. 결론

###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어의 정표화행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범위를 밝혀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정표 화행이란, ‘화자가 사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청자가 이에 대하여 감정이입 되기를 기대하는 행위(이혜용, 2009: 52)’이다.<sup>1)</sup> 인간의 감정이란, 행복, 분노, 두려움, 놀람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에 대해 상대가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감정을 수반하여 발화할 때, 그 행위를 바로 정표화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 화행분류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진술, 질문, 명령, 청유, 약속으로만 분류한 채 정표화행은 큰 분류의 체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1) 기존의 정표화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earle(1969)은 “화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하였고, Rolf(1990)는 “화자의 특정한 느낌 또는 감정을 전달하고 청자가 이를 공감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하였고, Weigand(2002:14)은 “대화 상대방의 감정이입적 반응 화행을 목적으로 하는 화행.”이라고 하였다(이혜용: 2009, 재인용). 이혜용(2009: 52)은 이를 종합하여 “화자가 사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청자가 이에 대하여 감정이입 되기를 기대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정표화행과 감정표출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감정표현의 경우 청자가 없을 때도 발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에 혼자 있다가 큰 바퀴벌레를 보고, “깜짝이야.”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청자가 없으므로 청자가 감정이입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즉, 혼자만의 감정 표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표화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도 단순 감정 표출은 정표화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존 화행 분류에서 주요 화행으로 정표화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정표화행은 다른 주요 화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주요한 화행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Austin(1962)<sup>2)</sup>, Searle(1976)<sup>3)</sup>, Katz(1977), Bach-Harnish(1979)<sup>4)</sup>, Leech(1983) 등의 분류에서는 정표화행을 모두 진술, 명령 등과 같은 비중의 주요 화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의 화행의 특성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화행의 통사론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장 유형에서도 ‘감탄문’을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통해, 복잡한 인간의 정서 역시 언어 형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이는 인간의 정서를 언어로써 표현하는 행위인 정표화행을 하나의 화행 요소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이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 화행을 분류하는 데에서도 논리상 정표화행의 대두가 필요하다. 장경희(1999)<sup>6)</sup>에서 나온 한국어의 화행 분류에 따르면, 교환 행위 구성 시에 지나는

- 
- 2) 기본 화행 분류의 연구의 시조인 Austin(1962)은 인간의 언어 사용을 ‘언어행위(speech act, 화행(話行))’라는 관점에서 보고 기본적인 화행의 유형을 판정행위(Verdictives), 권한행사행위(Exercitives), 언약행위(Commissives), 평서행위(Expositives), 행태행위(Behabitives)로 분류하였다. 이 중 행태행위의 하위 행위가 사과, 축복, 항의동정, 감사, 환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사실상 정표 행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 Searle(1976)은 화행을 분류하기 위한 1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인 ‘발화수반 목적’, ‘언어와 세상의 방향성’, ‘화자의 심리상태’를 사용하여 기본 화행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그는 기본 화행을 단언화행(Assertives), 지시화행(Directives), 위임화행(Commissives), 정표화행(Expressives), 선언화행(Declarations)으로 분류하였다.
  - 4) Bach-Harnish(1979)에서는 인사행위(Acknowledgments)라는 이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의 하위 행위가 사과, 위로, 축하, 감사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이 역시 사실상 정표 행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이 연구에서는 감탄문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구나, -군’ 따위를 정표화행을 나타내는 표지로 삼지 않는다. 이들은 학문문법에서의 분류에 따라서 진술화행을 나타내는 표지의 일종으로 보며, 정표화행을 간접화행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들의 위치를 정하고자 한다.
  - 6) Searle이 제시한 다섯 가지 기본 화행 유형인 ‘단언화행, 지시화행, 언약화행, 정표화행, 선언화행’은 수행 동사를 통해 분류하여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분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제 대화의 화행 분석에서 이것으로 분류를 하면 분류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의 화행 기능은 주로 종결어미를 통하여 나타나므로, 문법적 표지로 분류된 화행 분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장경희(1999)의 논의를 따른다.

발화 행위의 기능을 요구 화행<sup>7)</sup>과 응대 화행으로 구분하고 있고, 요구화행을 구성하는 것에 진술, 명령, 청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요구화행도 하위 분류를 해 보면, 해야 할 일이 전제되는 것(명령, 청유)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진술)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정표)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정표화행은 인간의 감정<sup>8)</sup>을 표출하므로 정보를 드러낸 진술화행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해야 할 일에 대한 전제를 갖고 있는 명령, 청유, 약속의 화행과도 크게는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행 분류의 가장 큰 목적은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의사소통 효율성의 극대화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표화행이 정표화행에 대해 응대하는 독특한 응대 양식<sup>9)</sup>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 연구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밝히려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표화행이 어떠한 하위 화행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힌다. 정표화행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므로, 심리학의 인간 감정 분류를 기초로 하여 정표화행을 구성하는 하위 화행을 살펴보도록 한다.<sup>10)</sup> 둘째, 그 하위 구성이 한국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나

7) 장경희(1999)에서는 한국어 화행은 우선 크게 주제적 화행과 구성적 화행으로 나뉘며, 대화의 명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적 화행은 요구화행과 응답화행으로 나뉜다고 본다. 요구화행이란, 갑과 을이 한 번씩 말했을 때, 응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쪽의 화행을 뜻하며, 응대화행이란, 갑과 을이 한 번씩 말했을 때, 상대의 요구에 대해 응대하는 쪽의 화행을 뜻한다.

8) 본고에서는 Searle(1969)의 정의에서 ‘심리 상태’라는 용어가 모호하게 받아들여져서 ‘감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정의를 삼았다.

9) 예를 들면, 사과할 때,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상대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천만에요”와 같은 특별한 응대 표현이 있다. 이는 “네.”, “아니요.”로 답변하는 긍정, 부정, 수락, 거절 등의 응대 표현과는 확연히 다르다.

10) 심리학적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에서의 기준이 가장 발달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환대화행’, ‘감사화행’, ‘축하화행’, ‘환호화행’을 계속 생산해 낸다면 기능을 밝히는 것은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분류의 체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루지 못하고 분류 영역의 겹침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빈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학제적으로 심리학을 끌어들인 것이다. 둘째, 심리학적 기준으로 나누어도 기능적 화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표화행의 분류를 화용론적 입장에서 ‘환대’, ‘감사’, ‘축하’, ‘환호’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나온 ‘기쁨화행, 슬픔화행’이라는 것도 그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환대화행’, ‘감사화행’ 등은 이러한 큰 체계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타나는지를 밝힌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내었겠지만, 우리 연구는 한국어의 정표화행이므로 이 보편적인 감정들이 한국어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을 밝힌다. 화행은 대화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서 대화의 교환층위에서 보면 크게 요구화행과 응대화행으로 나누어지는데, 정표화행은 상대방의 공감<sup>11)</sup>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요구화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정표화행이라는 요구화행에 대한 응대화행도 존재할 것인데, 이들을 밝히고 분류하여 정표화행이 주요 화행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화행은 독특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큰 틀에서 분류하는 것 또한 연구의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정표화행의 범위

정표화행을 다루기 전에 이 연구에서 정표화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표화행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의 감정표현을 다룬 감정동사에 대한 연구와 정표화행의 하위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개별화행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중 정표화행 유형 분류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혜용(2009)을 들 수 있다. 이혜용(2009)에서는 기존의 화행 분류가 화자와 청자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분류기준에 의사소통적 특성을 반영하였다.<sup>12)</sup> 이는 정표화행이 화자

---

분류할 수 있다.

- 11) Rolf(1990)에서는 화자의 정표 화행 발화 의도는 ‘화자의 특정한 느낌 또는 감정을 전달하고 청자가 이를 공감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며, Weigand(2002)에서는 ‘대화 상대자의 공감적 반응 화행을 목적으로 하는 화행’이라고 제시했다(이혜용, 2011:7, 재인용).
- 12) 1차 분류의 기준은 대화이동 연속체 내에서의 위치로 화행이 실현되는 대화상의 위치를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시작 정표화행’, 하나의 화행을 전제하는 ‘반응 정표화행’, 두 개의 화행을 전제하는 ‘재반응 정표화행’으로 구분했다. 2차 분류 기준은 의사소통 목적을 기반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공감 유발을 기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자 공감형성 정표화행’과 ‘청자 공감 유발 정표화행’, ‘청자 반감 유발 정표화행’으로 구분하였다. 또 반응 정표화행도 ‘양자 공감 형성 정표화행’과 ‘청자 반감 유발 정표화행’으로 구분하였다. 3차 분류기준은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화자의 사태에 대한 인식에 따라 ‘긍정적 감정’과

가 청자에게 공감할 유도를 하고 일정한 응대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정표화행 분류에서 양자공감형성과 청자 공감유발 의도, 반감유발 의도로 분류한 점과 정표화행이 응대화행에 사용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용서화행 등) 등이 본고의 논의와는 다르다. 분류의 체계에서도 본고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면, 조롱이 청자 반감유발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조롱은 화자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 화자가 청자의 반감을 유발하기 위한 발화로 보지 않았다. 이는 분류에 있어 명확하고 또 간결한 기준이 있어야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주 9에서도 밝혔듯이 심리학적인 분류가 강점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 분류를 선택하도록 한다.

인간의 감정표현을 다룬 감정동사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정서를 나타낸 언어의 형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표화행과 공통점이 있다. 최석재(2008)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이용하여 감정동사를 의미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의미 특성별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감정동사를 ‘사랑, 기쁨, 놀람, 분노, 슬픔, 두려움’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고, 이를 다시 크게 상태형과 반응형으로 구분하였다. 홍종선 외(2009)에서는 국어에서 유정물의 감정을 서술하는 동사와 형용사 어휘들을 ‘감정 동사’라고 통칭하고, ‘경험주 논항’, ‘자극제 논항’, ‘주관적 의미’, ‘마음상태 서술’이라는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려진 감정동사의 목록은 ‘감동, 감사, 고뇌, 고독, 기쁨, 놀람, 동정, 두려움, 미안함, 분노, 상쾌함, 수용, 수치심, 슬픔, 욕구, 이완, 허무, 혐오, 후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동사의 분류는 정표화행 하위 유형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기존의 Austin(1962)과 Searle(1976)의 화행 분류가 화자와 청자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고, 수행 동사의 분류라는 비판을 받은 점과 같은 이유로 정표화행 유형 분류의 단일 기준으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표화행 분류를 위해서는 감정동사와 함께 정표화행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표화행은 인간의 정서를 기반으로 해야 함을 전제로, 감정을 다룬 심리학적 연구와 감정 동사를 다룬 연구를 참고하여 정표화행의 하위 화행을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정표화행이 하나의 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었다.

적정조건을 확정하도록 한다.

## 2.1 정표화행의 구성

정표화행은 인간의 정서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정표화행 분류 기준은 인간의 정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Ekman(2004)은 정서를 여섯 가지(기쁨, 슬픔, 놀람, 분노, 공포, 혐오)로 분류하여 인간은 모두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sup>13)</sup>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다. ‘슬픔’이란,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느낌이다. ‘놀람’이란, 뜻밖의 일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다. ‘분노’란,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의 느낌이다. ‘혐오’란, 상대를 미워하고 꺼리는 느낌이다. 분노와 혐오는 불만의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일치하지만, 혐오는 기분을 느끼는 특정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 분노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공포’란,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느낌으로, 불안으로 치환될 수 있다.

Ekman(2004)은 이 여섯 가지 기본 정서의 하위 정서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정의하였다.

〈표 1〉 Ekman(2004)의 하위 정서(김경희, 2004, 재인용)

하위 정서	정 의
분노	나와 나의 소유에 대한 위반 행위.
불안	모호한 존재적 위협에 직면하는 것.
경악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압도적인 위협에 직면하는 것.
죄책감	도덕적 명령을 위반한 것에 직면하는 것.
수치심	자아이상(Self-ideal)에 따라 생활하는 데 실패하는 것.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는 것.

13) 심리학에서 정서를 다루는 이론은 크게 기본정서이론(basic emotions theory)과 정서차원이론(dimensional theory of emotion)이 있다. 기본정서이론이란 인류에 보편적인 몇 개의 기본적인 정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정서차원이론이란 개별정서는 고유한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소수의 차원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두 이론 모두 학자들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박인조·민경환, 2005).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받아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기본정서이론을 채택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온 Ekman의 6개 분류를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부러움	타인이 소유한 것을 원하는 것.
질투	타인의 애정의 상실 또는 위협에 대한 관계자를 원망하는 것.
혐오	소화할 수 없는 대상 또는 생각에 너무 가까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행복	목표 실현에 대한 합리적 발전을 하는 것.
자만심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동일시하는 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집단의 가치 있는 대상, 혹은 성취를 명예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증대시키는 것.
실망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와 불일치되는 조건에 직면하는 것.
희망	최악의 것을 두려워하면서 최선의 것을 갈망하는 것.
사랑	일반적으로 보답할 필요가 없는 애정을 원하거나, 애정이 빠지는 것.
연민(동정)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데 마음이 움직여서 돕기를 원하는 것.

Ekman은 하위 정서를 분류하지 않고 나열했지만, 체계를 띠기 위해서는 분류를 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정표화행은 언어를 통해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표화행을 위한 분류는 언어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필요에 맞게 감정의 하위 정서를 분류하였다.

하위 정서 분류의 기준은 네 가지이다. 첫째, 보편적인 기본정서의 경우 에크만의 여섯 가지 상위 정서<sup>14)</sup>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위에서 제시된 에크만의 하위 정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통하여 명확한 언어학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셋째, 한국어에서 감정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품사인 감탄사를 중심으로 정서를 분류하였다.<sup>15)</sup> 넷째, 한국어 감정동사 분류를 통하여 나타난 감정을 인간의 기본정서를 통해 재분류하였다.<sup>16)</sup>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하여 하위 정서를 1차적으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14) Ekman은 여섯 가지 기본 정서를 분류할 때, 9가지 기준(① 특징이 있는 보편적 신호 ② 다른 영양류에서도 출현 ③ 특징적인 생리학 ④ 선행사건에서의 특징적 보편성 ⑤ 정서적 반응체계의 응집력 ⑥ 빠른 시작 ⑦ 짧은 지속성 ⑧ 자동적 평가 ⑨ 원하지 않은 발생)에 따랐다. 이 여섯 가지 기본 정서는 프리젠(Friesen), 엘스워스(Ellsworth) 등 다수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심리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아, Ekman의 분류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15)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원초적인 발화로서, 품사를 부여하고 엄연히 하나의 발화로 인정하고 있기에 감탄사를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으로 넣었다.

16) 앞서 제시했듯이 감정동사의 경우 단일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감정이 말로써 표현되는 행위인 정표화행의 표현방법 중 하나이므로, 다른 기준과 함께 정표화행의 하위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 (1) ㄱ. 기쁨: 기쁨(즐거움), 희망, 사랑, 자만심
- ㄴ. 슬픔: 슬픔, 실망, 연민(동정)
- ㄷ. 놀람: 놀람, 경악
- ㄹ. 분노: 분노
- ㅁ. 혐오(반감): 혐오, 질투
- ㅂ. 공포: 공포(불안), 죄책감, 수치심, 부러움

(1ㄱ)은 ‘기쁨(즐거움)’과 그 하위 정서를 나타내었다. ‘기쁨(즐거움)’은 직접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은 대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의 하위 정서로 설정하였다. ‘희망’은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으로 욕구가 충족되길 바라는 부족한 상태이어서 ‘공포’의 하위 정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욕구의 불충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아닌 기쁨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기쁨’의 하위정서로 설정하였다. 또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보일 수 있으나 자기만족이라는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쁨의 하위 정서로 분류하였다. (1ㄴ)은 ‘슬픔’과 그 하위 정서를 나타내었다. ‘슬픔’은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느낌이다. ‘연민(동정)’은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감정을 통하여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로 이어지기에 슬픔의 하위정서로 분류하였다. 또 ‘실망’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상태로, 이러한 감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슬픔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슬픔의 하위 정서로 분류하였다. (1ㄷ)은 놀람과 그 하위 정서를 나타내었다. ‘놀람’과 ‘경악’의 차이는 놀람의 정도성의 약·강의 차이이며, ‘경악’은 중립적인 ‘놀람’과는 달리 비선호적인 뉘앙스가 가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1ㄹ)은 ‘분노’와 그 하위 정서를 나타내었다. 하위 정서에는 분노만이 존재하였다. (1ㅁ)은 ‘혐오(반감)’의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혐오’의 경우 상대를 미워하고 꺼리는 것을 뜻하며, ‘질투’는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하는 것을 뜻하므로 모두 ‘혐

17) ‘경악’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로 ‘놀람’보다 강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Ekman(2004)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압도적인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정의에서 ‘압도적인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비선호적인 뉘앙스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반감)’의 하위 정서로 분류하였다.<sup>18)</sup> (1ㄴ)은 ‘공포’와 그 하위 정서를 나타내었다. ‘공포(불안)’는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죄책감, 수치심’은 자신이 한 행위에 안도감이 상실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러움’은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불충족의 마음이 불안감으로 작용하거나 불만의 마음이기 때문에 공포의 하위 정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정서를 감정동사와 감탄사를 통하여 2차 분류를 하고, 화용론에 맞게 화행으로 이름 붙여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19)</sup>

- (2) ㄱ. 기쁨화행: 기쁨화행, 감탄화행(칭찬화행 포함), 소망화행, 호감화행(존경화행, 애정화행, 환영화행, 환대화행, 축복화행, 축하화행, 감사화행 포함), 자만화행
- ㄴ. 슬픔화행: 슬픔화행(고독화행 포함), 실망화행, 동정화행(애도화행, 위로화행 포함)
- ㄷ. 놀람화행: 놀람화행, 경악화행
- ㄹ. 분노화행: 분노화행
- ㄴ. 혐오화행: 혐오화행(무시화행, 저주화행, 타박화행 포함), 질투화행
- ㄷ. 공포화행: 공포화행(걱정화행, 사과화행 포함), 자책화행(한탄화행, 후회화행 포함), 수치화행, 선망화행

18) 질투는 부러워하는 면이 있으므로 선망 즉 공포의 하위 분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혐오의 하위화행으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질투란,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하는 것. 《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샘하는 것(부러워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미워하는 것이 결론이 된다. 즉, 샘하는 것(공포)이 종(從)이 되고 미워하는 것(혐오)이 주(主)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혐오의 하위 정서로 분류하였다.

19)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화행의 명칭으로 ‘기쁨화행, 슬픔화행, 공포화행’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기본 정서를 기준으로 정표화행을 분류한 것인데, 감정 상태를 화행명으로 바로 언급한다는 것은 화행의 illocutionary act라는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주셨다. 또한 단언화행, 지시화행, 언약화행, 선언화행에서 언급되는 화행명을 고려해 볼 때, 더욱더 ‘기쁨화행, 슬픔화행, 공포화행’ 등의 용어는 이질적으로 보인다고 하셨다. 화행 본질의 정곡을 찌르는 지적에 감사드린다. 원래 ‘기쁨정표화행’ 식의 명칭이 illocutionary act라는 측면이나 다른 화행과의 동질성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 ‘기쁨정표화행’이라고 하려다 보니 2음절의 여타 화행명(단언, 지시, 언약 등)과는 음절 수가 이질적이게 되고, 또한 글자 수가 많아져서 명칭을 인식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래는 ‘감정 + 정표 + 화행’이 맞으나, 본고에서는 ‘정표’를 생략하여 ‘감정 + 화행’으로 명명하도록 한다.

(1ㄱ)에 비해서 (2ㄱ)은 희망이 소망으로, 사랑이 호감으로, 자만심이 자만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감탄화행에 칭찬화행을, 호감화행에 존경·애정·환영·환대·축복·축하·감사 화행을 포함하였다. (1ㄴ)에 비해서 (2ㄴ)은 슬픔화행에 고독화행을, 동정화행에 애도·위로 화행을 포함하였다. (1ㄷ)에 비해서 (2ㄷ)과 (1ㄹ)에 비해서 (2ㄹ)은 바뀐 것이 없다. (1ㅁ)에 비해서 (2ㅁ)은 혐오화행에 무시·저주·타박 화행을 포함하였다. (1ㅂ)에 비해서 (2ㅂ)은 죄책감이 자책으로, 수치심이 수치로, 부러움이 선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공포화행에 걱정·사과 화행을, 자책화행에 한탄·후회 화행을 포함하였다.

## 2.2 정표 화행의 적정 조건

화행은 그 화행이 하나의 가치 있는 화행으로 인정되기 위한 적정조건을 갖는다. 반대로 적절한 적정조건을 갖는다면 하나의 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Searle(1969)에서 적정조건을 명제내용조건(content condition), 준비조건(preparatory condition), 성실조건(sincerity condition), 본질조건(essential condition)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화용론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것에 따라 제시하도록 한다. ‘명제내용조건’이란, 발화의 명제 부분에 의해서 표현된 의미를 명시한다. 화자와 청자 가운데 누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가와 어느 시점의 행동인가를 나타내 준다. ‘준비조건’이란, 화행의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준비 규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동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성실조건’이란, 화행이 성실히 수행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시한다. 만약 발화하는 사람이 너무 불성실해서 발화수반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자는 남용의 죄를 짓는 것이다. ‘본질조건’이란, 관습적으로 화행이 어떻게 간주되는지를 명시한다.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나 의도로서 그의 발화에 나타난 수행적 힘에 의해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발화가 이러한 약속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는 불이행죄를 짓는 것이다.

Searle(1969)의 적정조건에 따라서 정표화행의 적정조건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sup>20)</sup>

20) 이 적정조건은 기존 진술화행의 적정조건과 이해용(2009:41-4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적정조건은 이해용(2009)과는 차이가 있다. 이해용에서는 명제내용조건을

- (3) ㄱ. 명제내용조건: 명제는 인간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ㄴ. 준비조건: 화자는 정서가 있다. 즉,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ㄷ. 성실조건: 화자는 그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 한다.  
 ㄹ. 본질조건: 화자의 표현은 실제 세계에서 화자가 감정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간주된다.

(3ㄱ)은 진술화행의 명제가 정보를 다루듯, 정표화행의 명제는 정서를 다룬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가령,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감사화행의 명제는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이다.<sup>21)</sup> 수행동사를 사용하여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정표한다.”로 나타내면, 이 화행의 명제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 명제는 바로 정서인 것이다. 따라서 명제내용조건은 인간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3ㄴ)은 정표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3ㄷ)은 화자는 정표화행을 발화할 때 거짓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3ㄹ)은 정표화행을 나타내면,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듯 정표화행은 적절한 적정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표화행은 하나의 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정표화행의 수행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본고에서는 그것은 명제가 나오기 위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제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준비조건은 화자가 사태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의 인식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해용에서 감정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서 다르게 표현하였다. 이해용에서 성실조건이라고 한 ‘화자는 사태에 대하여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는 화자의 성실성에 대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화자가 정표화행을 발화하기 위한 준비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본고에서는 준비조건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질조건은 이해용에서 화자의 감정 표현과 감정 이입 기대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정표화행이 일반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본고의 본질화행은 진술화행의 본질조건(화자는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생각이나 사실, 의견이나 정보 등을 전달하려고 한다.)을 본따서 만들었다.

- 21) ‘이렇게 도와주다.’를 명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마움의 이유일 뿐이지 명제가 아니다.

### 3. 정표화행의 실현

이 장에서는 정표화행이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Ekman(2004)은 인간은 모두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런 보편적인 정서가 각 나라의 문화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어의 정표화행 역시 보편적인 정서에 기반하지만, 특정 방식이나 표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는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을 밝힐 것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정표화행은 요구 화행에 속하며, 하위정서에 따라서 여섯 개의 하위화행으로 구분되었다. 이 장에서는 정표화행의 요구화행이 정서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sup>22)</sup>

#### 3.1 정표 화행의 직접화행

정표 화행의 직접화행은 주로 감탄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감탄사의 화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의 감탄사가 여러 가지의 화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화행이 각기 다른 감탄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감탄사는 지역이나 성별 세대별로 창조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다룰 감탄사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화자에게 기본적으로 약속된 화행을 담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감탄사로 한정하고자 한다. 단,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나의 감탄사가 뜻풀이에서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뜻을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서 부여하도록 하겠다.

22) 진술화행이나 명령화행 등에도 모두 직접 화행과 간접화행이 있듯이, 정표화행에도 직접 화행과 간접화행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분류를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분류가 가능하였다.

23) 남기심·고영근(2006)에서는 감탄사는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감탄사를 감정감탄사, 의지감탄사,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분류를 지적하는 논의(오승신, 1997; 신지연, 2001)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탄사의 담화기능이 아닌 정서표현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므로, 감정 감탄사와 의지감탄사로 그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다.

### 3.1.1 기쁨화행

기쁨화행은 ‘기쁨화행, 감탄화행(칭찬화행 포함), 소원화행, 호감화행(존경화행, 애정화행, 환영화행, 환대화행, 축복화행, 축하화행, 감사화행 포함), 자만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감탄사를 분류하였을 때, 기쁨의 감정 중에서 ‘기쁨화행, 감탄화행’의 감탄사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기쁨화행의 직접화행은 기쁨화행, 감탄화행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 (4) ㄱ. 기쁨화행: 하하하, 만세, 심봤다, 야, 야호, 브라보, 얼씨구, 이야, 흠  
 ㄴ. 감탄화행: 아, 아이<sup>24)</sup>, 오

(4ㄱ)은 기쁨의 감정을 감탄사로 나타낸 직접화행이고, (4ㄴ)은 감탄(감동)의 감정을 감탄사로 나타낸 직접화행이다.

### 3.1.2 슬픔화행

슬픔화행은 ‘슬픔화행(고독화행 포함), 실망화행, 동정화행(애도화행, 위로화행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감탄사를 분류하였을 때, 슬픔화행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 (5) ㄱ. 슬픔화행: 아이고, 아, 아아, 오호통재라  
 ㄴ. 동정화행: 아이고, 아, 아아, 후유, 아휴, 찢, 찢찢, 찢찢찢, 참  
 ㄷ. 실망화행: 아이고, 아, 아아, 애개, 예끼, 예잇, 후유, 아휴, 찢, 찢찢, 찢찢찢, 참

(5ㄱ)은 슬픔화행을 감탄사로 나타내는 직접화행이다. ‘아이고’, ‘아’, ‘아아’는 동정·실망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5ㄴ)은 동정화행을 감탄사로 나타내는

24) ‘아아’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1. 감격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2. 뜻밖의 일을 당하였을 때 나오는 소리. 3. 때 지어 싸울 때, 기운을 내거나 돋우려고 내는 소리.’라고 뜻풀이되어 있다. ‘1.’의 경우는 ‘감탄화행, 슬픔화행, 동정화행, 실망화행, 자책화행, 수치화행’이 속해 있고, ‘2.’의 경우는 ‘놀람화행’이 속해 있으며, ‘3.’의 경우는 ‘분노화행’이 속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아아’가 여러 가지 분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 인용된 다른 감탄사들도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기준으로 화행에 배치하였다.

직접화행이다. ‘후유’, ‘아휴’, ‘쫘’, ‘쫘쫘’, ‘쫘쫘쫘’, ‘참’의 경우는 실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5ㄷ)은 실망의 감정을 감탄사로 나타내는 직접화행이다.

### 3.1.3 놀람화행

놀람화행은 ‘놀람화행, 경악화행<sup>25)</sup>’으로 이루어져 있다.

- (6) ㄱ. 놀람화행: 깜짝이야, 어머, 아, 아아, 아야, 아이고, 앓, 야, 억, 그래, 뭐,  
어머나, 어머머  
ㄴ. 경악화행: 세상에, 맏소사

(6ㄱ)는 놀람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감탄사이고, (6ㄴ)은 경악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3.1.4 분노화행

분노화행은 분노화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7) 분노화행: 빌어먹을, 시, 쌍, 씨, 아아, 아이참, 에이, 우라질, 이야, 제기랄,  
젠장, 흙, 흥, 흥, 배라먹을, 제기랄, 욕시랄

(7)은 분노의 감정을 감탄사로 나타낸 직접화행이다.

### 3.1.5 혐오화행

혐오화행은 ‘혐오화행(무시화행, 저주화행, 타박화행 포함), 질투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감탄사는 ‘혐오(반감)’를 드러내는 것만 존재하였다. 따라서 혐오화행의 직접화행은 혐오화행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 (8) 혐오화행: 에이끼, 예끼, 예라, 어허

25) ‘경악’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로 ‘놀람’보다 한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또 “어린나이에 이런 문제를 풀다니 놀라워!!”, “어린 소년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다니 경악할 노릇이다.”와 같이 ‘경악’이 ‘놀람’보다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사용된다.



(8)은 혐오화행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3.1.6 공포화행

공포화행은 ‘공포화행(걱정화행, 사과화행 포함), 자책화행(한탄화행, 후회화행 포함), 수치화행, 선망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감탄사는 ‘불안화행’, ‘자책화행’, ‘수치화행’을 나타내는 것만 존재하였다. 따라서 공포화행의 직접화행은 ‘불안화행’, ‘자책화행’, ‘수치화행’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 (9) ㄱ. 불안화행: 하, 후, 후유  
 ㄴ. 자책화행: 하, 후, 후유, 아, 아아  
 ㄷ. 수치화행: 하, 후, 후유, 아, 아아

(9ㄱ)은 불안화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9ㄴ)의 자책화행, (9ㄷ)의 수치화행은 모두 불안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안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쓰이며, ‘아’, ‘아아’는 자책화행, 수치화행에만 쓰인다.

## 3.2 정표화행의 간접화행

정표화행의 간접화행은 주요화행인 진술, 질문, 명령, 청유, 약속의 형식으로 나타난다.<sup>26)</sup> 그 양상을 용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sup>27)</sup> 간접화행을 나타

26) 정표화행이 다양한 형식에 힘입어 간접적으로 나타날 때의 원리와 기능적인 특성에 대하여 이준희(2000)에서는 ‘간접 감사’의 일반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화1: 화자는 청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예비성 조건을 서술함으로써 간접 감사를 할 수 있다.

일반화2: 화자는 명제내용조건을 서술함으로써 간접 감사를 할 수 있다.

일반화3: 화자는 성실성 조건이 행해지는지를 서술함으로써 간접적 감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청자의 과거 행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는 간접 감사를 할 수 없다.

일반화4: 화자는 청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서술함으로써 간접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청자가 화자의 고마움을 받기를 원했을 때는 화자의 감사 표시는 감사화행으로 볼 수 없다.

화행에 있어 이러한 기능적 측면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지면적 여력으로 본 연구는 정표화행의 간접화행을 분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차후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27) 본고의 예는 대부분 작성례이다. 감정 동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반면 정표화행의 간접화행 중 함축 사용 등은 대

내는 양상의 유형으로는 감정동사 직접 사용(“기쁘다.” 따위), 감정동사 간접 사용(“어쩔 이렇게 기쁠까?” 따위), 관용표현 사용(“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따위), 함축 사용(“내가 합격하다니!” 따위) 등이 있다.

### 3.2.1 기쁨화행

기쁨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명령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 (10) ㄱ. 기쁨화행: 참 기쁘다./나 좀 꼬집어 줘./어쩔 이렇게 기쁠까?
- ㄴ. 감탄화행: 정말 감탄했어./어쩔 내가 낳았지만, 저렇게 잘생겼니?
- ㄷ. 소망화행: 나는 네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건강하게 지내라.
- ㄹ. 호감화행: 사랑해./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 ㅁ. 자만화행: 난 천재야./넌 나한테 안 될걸?

(10ㄱ)는 기쁨을 진술(종결 어미 ‘-다’), 명령(‘-어’<sup>28)</sup>), 질문 형식(‘-ㄴ까’)<sup>29)</sup>으로 나타내고 있다. (10ㄴ)은 감동을 진술(‘-어’), 질문의 형식(‘-니’)으로 나타내고 있다. (10ㄷ)은 소망을 진술(‘-아.’), 명령의 형식(‘-아라’)으로 나타내고 있다. (10ㄹ)은 사랑을 진술(‘-아’), 질문의 형식(‘-지’)으로 나타내고 있다. (10ㅁ)은 자만심을 진술(‘-야’), 질문의 형식(‘-ㄴ걸’)으로 나타내고 있다.

### 3.2.2 슬픔화행

슬픔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 (11) ㄱ. 슬픔화행: 너무 슬프다./나만 이런 기분인가?
- ㄴ. 동정화행: 불쌍해./불쌍해서 어떡하니?
- ㄷ. 실망화행: 실망이야./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

부분 상황에 맥락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적 제약으로 이러한 상황 맥락을 모두 다루지 못하고 그 대략적인 예만 제시하고자 한다.

28) 종결 어미 ‘-아/-어’, ‘-아요/-어요’, ‘-지’, ‘-지요’ 따위는 쓰임에 따라 진술, 명령, 청유, 질문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29) 질문의 경우 주로 소설이나 시 등의 문어체에서 나타난다.

(11ㄱ)은 슬픔화행을 진술(‘-다’), 질문 형식(‘-는가’)을 통해, (11ㄴ)은 동정 화행을 진술(‘-아’), 질문 형식(‘-니’)을 통해, (11ㄷ)은 실망화행을 진술(‘-야’), 질문 형식(‘-크까’)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3.2.3 놀람화행

놀람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 (12) ㄱ. 놀람화행: 깜짝 놀랐잖아./이게 뭐야?  
 ㄴ. 경악화행: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이걸 다 먹었어?

(12ㄱ)은 놀람화행을 진술(‘-아’), 질문 형식(‘-아’)으로, (12ㄴ)은 경악화행을 진술(‘-군’), 질문 형식(‘-어’)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3.2.4 분노화행

분노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명령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 (13) 분노화행: 짜증 나./그러니 내가 짜증이 나 안나? /차라리 죽여, 죽여!

(13)은 분노화행을 진술(‘-아’), 질문(‘-아’), 명령 형식(‘-어’)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3.2.5 혐오화행

혐오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 (14) ㄱ. 혐오화행: 나는 개가 싫어./왜 저렇게 살아?  
 ㄴ. 질투화행: 나보다 예쁘지도 않구먼./저게 예뻐?

(14ㄱ)은 혐오화행을 진술(‘-어’), 질문 형식(‘-아’)을 통해, (14ㄴ)은 질투화행을 진술(‘-구먼’), 질문 형식(‘-어’)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3.2.6 공포화행

공포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15) ㄱ. 공포화행: 무서워.

ㄴ. 자책화행: 나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내가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ㄷ. 수치화행: 너무 창피하다./내가 거기서 왜 넘어졌지?

ㄹ. 선망화행: 부럽다./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15ㄱ)은 공포화행을 진술 형식(‘-어’)을 통해, (15ㄴ)은 자책화행을 진술(‘-어’), 질문 형식(‘-을까’)을 통해, (15ㄷ)은 수치화행을 진술(‘-다’), 질문 형식(‘-지’)을 통해, (15ㄹ)은 선망화행을 진술(‘-다’), 질문 형식(‘-을까’)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4. 정표 화행의 응대 화행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화행은 공감화행, 비공감화행, 응대거부화행으로 나눌 수 있다.<sup>30)</sup> 응대화행을 진술화행의 응대화행처럼 긍정화행과 부정화행(장경희, 1999:331)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긍정’, ‘부정’이라는 말은 선행 발화의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가리키는 말이지, 정서에 대한 대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서이다. 즉, 선행발화는 정보를 가진 명제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표출일 수도 있는데, ‘긍정’, ‘부정’이라는 말은 정보를 가진 명제에 대해 옳고 그름의 응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를 나타내는 용어로 ‘공감’과 ‘비공감’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대화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정표화행의 응대화행인 공감화행과 비공감화행에도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직접화행과

30) 4.1.절에서는 화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구분하였고, 4.1.1.의 절에서는 직접화행, 간접화행으로 나누었다. 즉 정표화행의 경우는 하위 화행으로 나누었고, 그 밑에 직접·간접화행으로 구성했지만, 공감화행, 비공감화행, 응대거부화행은 그 밑의 하위화행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간접화행으로 구성하였다.

간접화행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 4.1 공감화행

공감화행이란, 정표화행에 대하여 상대 화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대응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감화행은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타난다.

##### 4.1.1 직접화행

공감화행의 직접화행은 감탄사로서 나타난다. 이는 진술·판정질문에 대해 긍정·부정, 명령·청유에 대해 수락·거절의 직접화행이 감탄사(예, 아시오)로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16) ㄱ. 갑: 와, 되게 웃긴다./을: 그러게.<sup>31)</sup>

ㄴ. 갑: 너무 슬프다./을: 그러게.

ㄷ. 갑: 깜짝 놀랐잖아./을: 그러게.

ㄹ. 갑: 짜증 나./을: 그러게.

ㅁ. 갑: 나는 개가 싫어./을: 그러게.

ㅂ. 갑: 무서워./을: 그러게.

(16)은 정표화행에 대한 응답으로서 공감화행의 직접화행을 발화한 예이다. (16ㄱ)은 기쁨화행에 대해, (16ㄴ)은 슬픔화행에 대해, (16ㄷ)은 놀람화행에 대해, (16ㄹ)은 분노화행에 대해, (16ㅁ)은 혐오화행에 대해, (16ㅂ)은 공포화행에 대해 공감화행을 감탄사를 사용하여 직접화행으로서 응답한 예이다.

##### 4.1.2 간접화행

공감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정표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17) ㄱ. 갑: 와, 되게 웃긴다.

을: 진짜 웃긴다./하하하./누가 아니라니?

3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러게’를 감탄사로 보고 있으며, 그 의미는 ‘상대편의 말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 ㄴ. 갑: 너무 슬프다.  
을: 진짜 슬프다./아이고./누가 아니라니?
- ㄷ. 갑: 깜짝 놀랐어.  
을: 나도 놀랐어./세상에./누가 아니라니?
- ㄹ. 갑: 짜증 나.  
을: 나도 짜증 나./빌어먹을./누가 아니라니?
- ㅁ. 갑: 나는 개가 싫어.  
을: 나도 개가 싫어./누가 아니라니?
- ㅂ. 갑: 무서워.  
을: 나도 무서워./하./누가 아니라니?

(17ㄱ)은 기쁨화행에 대해, (17ㄴ)은 슬픔화행에 대해, (17ㄷ)은 놀람화행에 대해, (17ㄹ)은 분노화행에 대해, (17ㅂ)은 공포화행에 대해 진술, 정표, 질문 형식을 통해 공감화행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예이다. (17ㅁ)은 혐오화행에 대해 진술, 질문 형식을 통해 공감화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 4.2 비공감화행

비공감화행이란, 정표화행에 대해 상대 화자가 감정을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공감의 대응을 하는 화행을 가리킨다. 비공감화행은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타난다.

### 4.2.1 직접화행

비공감화행의 직접화행은 감탄사로서 나타나며, 대부분 명시적으로 감정에 대해 공감을 유도하는 발화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 (18) ㄱ. 갑: 진짜 웃기지./을: 아니.  
ㄴ. 갑: 슬프다. 그렇지?/을: 아니.  
ㄷ. 갑: 깜짝이야. 놀랐지?/을: 아니.  
ㄹ. 갑: 완전 짜증나지 않냐./을: 아니.  
ㅁ. 갑: 징그러운 것 정말 싫어. 그렇지?/을: 아니.  
ㅂ. 갑: 완전 무섭다. 그렇지?/을: 아니.

(18)은 정표화행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공감화행을 직접화행을 통해 발화한 예이다. (18ㄱ)은 기쁨화행에 대해, (18ㄴ)은 슬픔화행에 대해, (18ㄷ)은 놀람화행에 대해, (18ㄹ)은 분노화행에 대해, (18ㅁ)은 혐오화행에 대해, (18ㅂ)은 공포화행에 대해 감탄사를 사용하여 비공감화행의 직접화행으로 응답한 예이다.

#### 4.2.2 간접화행

비공감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질문, 명령, 청유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19) ㄱ. 갑: 와, 되게 웃긴다.

을: 난 안 웃겨./뭐가 웃기냐?/조용히 해./조용히 하자.

ㄴ. 갑: 너무 슬프다.

을: 난 안 슬퍼./뭐가 슬프냐?/조용히 해./조용히 하자.

ㄷ. 갑: 깜짝 놀랐어.

을: 난 안 놀랐어./뭘 놀래?/조용히 해./조용히 하자.

ㄹ. 갑: 짜증나.

을: 난 짜증 안 나./뭐가 짜증 나냐?/조용히 해./조용히 하자.

ㅁ. 갑: 나는 개가 싫어.

을: 나는 개가 싫지 않아./뭐가 싫냐?/조용히 해./조용히 하자.

ㅂ. 갑: 무서워.

을: 나는 무섭지 않아./뭐가 무섭냐?/조용히 해./조용히 하자.

(19)는 정표화행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공감화행을 진술, 질문, 명령, 청유 형식을 통해 간접화행으로 발화한 예이다. (19ㄱ)은 기쁨화행에 대해, (19ㄴ)은 슬픔화행에 대해, (19ㄷ)은 놀람화행에 대해, (19ㄹ)은 분노화행에 대해, (19ㅁ)은 혐오화행에 대해, (19ㅂ)은 공포화행에 대해 비공감화행의 간접화행으로 응답하였다.

감사화행이나 사과화행에 대해 응대할 경우에는 독특한 비공감화행의 형식이 있다.

(20) ㄱ. 갑: 고마워.

을: 천만어요./별 말씀어요.

ㄴ. 갑: 미안해.

을: 괜찮아요.

(20ㄱ)은 감사화행에 대해서 을의 응대가 형식적으로 정해졌지만, 그 화행은 비공감을 진술 형식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비공감을 통하여 자신의 겸손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sup>32)</sup> (20ㄴ)도 사과화행에 대해서 을의 응대가 형식적으로 정해졌지만, 그 화행도 역시 비공감이다.<sup>33)</sup> 이처럼 감사화행, 사과화행의 응대에서는 공감하는 것보다 비공감하는 것이 더 공손하다. 그래서 비공감화행이 공감화행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며, 독특한 응대형식이 존재한다.

## 5. 결론

정표화행은 진술, 명령, 청유, 약속과 함께 하나의 주요 화행으로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표화행은 기존 화행 분류에서 주요 화행으로 나타내고 있고, 독특한 응대 양식을 가지고 있고, 화행 분류체계상 감정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화행과 대립되어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요성을 띠는 정표화행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혔다.

첫째, 정표화행이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혐오, 공포의 6가지 하위화행과 각각의 하위화행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밝혔다.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표화행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인간의 정서가 기준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쁨, 놀람,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을 기본정서로 보았다. 또 이들의 하위정서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살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품사인 감탄사(《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것)와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동사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둘째, 정표화행이 적정조건을 갖는다는 점을 Searle의 적정조건에 비추어서

32) 을이 갑의 감사화행에 대해 공감하면 을은 자신이 감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라는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을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감사화행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보다 비공감하는 것이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

33) 을이 갑의 사과화행에 대해 공감하면, 을은 갑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재치의 격률(tact maxim)을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과화행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보다 비공감하는 것이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제시하였다.

셋째, 정표화행의 수행을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정표화행의 직접화행은 감정을 나타내는 품사인 감탄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정표화행의 간접화행은 주로 진술·질문·명령 형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표화행의 응대를 공감, 비공감 화행으로 나누었고, 용례를 통해서 그 체계를 살펴보았다. 응대화행의 공감 화행은 진술, 정표화행으로 간접화행이 나타났고, 비공감 화행은 진술, 정표, 질문 화행으로 간접화행이 나타났다. 감사·사과 화행의 응대는 그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데, 비공감화행이 더 공손함을 보였다.

## ■ 참고문헌 ■

- 강창우. 2004.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 기능성과 그 문제점」, 『독어학』 9. 195-215.
- 강현화·황미연. 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한말연구』 24. 5-31.
- 김경희. 2004. 『정서심리학』, 박영사.
- 김영란. 1999. 「한국어 금지 표현의 교수 방법」, 『한국어교육』 10-2. 171-193.
- 김은영. 2005. 「현대 국어 감정동사의 범위와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16. 99-124.
- 김은정. 2008. 「한국어와 일본어의 ‘칭찬’에 관한 고찰-TV토크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남기십·고영근. 2006.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인조·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19-1. 109-129.
- 신지연. 2001. 「감탄사의 의미구조」, 『한국어 의미학』 19-1. 241-259.
- 안신호·안승혜·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7-1. 107-123.
- 오승신. 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2. 53-86.
- 이원경. 2006.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 분류」, 『담화와 인지』 13-1. 163-182.
- 이혜용. 2009. 「한국어 정표화행 연구 - 정표화행의 유형 분류와 수행 형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용. 2011. 「의사소통적 특성을 고려한 정표화행의 유형 분류」, 『한국어 의미학』 34. 319-347.
- 이혜진. 2008. 「프로토콜 분석을 통한 사과화행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은하. 1998. 「감정동사 연구」, 『국어교육』 96. 317-337.
- 장경희. 1999a. 「대화의 접속과 내포」, 『텍스트언어학』 7. 141-177.
- 장경희. 1999b. 「진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의미학』 5. 311-332.
- 장경희. 2000. 「청유 화행에 대한 수락과 거절」, 『텍스트언어학』 9. 111-143.
- 장경희. 2000. 「판정 질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의미학』 7. 149-174.
- 장민주. 2009. 「한국어 칭찬화행 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정미. 2008. 「대화 텍스트에 나타난 칭찬화행의 양상」, 『겨레어문학』 40. 99-117.
- 최명선. 2007. 「한국어 불평-응답 화행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석재. 2008.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127-159.
- 최이슬. 2010. 「중국어 한국어 학습자의 칭찬 응대 화행 발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후영. 2005.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감사화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홍중선 · 정연주. 2009.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 45. 387-420.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 K. & Harnish, R. M. 1979.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Cambridge : The MIT Press.
- Ekman, Paul. 이민아(역). 2006. 『얼굴의 심리학(*Emotions Revealed: Emotional Life*)』. 바다출판사.
- Hindelang, Götz. 김갑년(역). 1999. 『화행론 입문(*Einführung in die Sprechakttheorie*)』. 한국문화사.
- Katz, J. 1977. *Propositional Structure and Illocutionary Force*. New York: Crowell.
- Leech, Geoffrey.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 Longman.
- S.C.Levinson. 이익환 외(역). 1992. 『화용론(*Pragmatics*)』. 한신문화사.
- Searle, J.R. 1969. *Speech Act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Publishing.
- Searle, J.R. 1976.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 1-23.

## □ Abstract

## A Study on Expressive in Korean Language by Clarifying Its Scope and Contents

Jeong Jongsu · Shin A-yeong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expressive in Korean language by clarifying its scope and contents. The expressive, because it expresses human emotions that are hardly defined precisely, was excluded from previous speech related researches. However, the facts that expressive is spoken through languages and that there are exclamations in Korean language can be the evidence to clarify characteristics of language form. Also, the point that there is a unique form of response speech acts in expressive implies the necessity for the study on this topic. This study assumes that human emotions can be the standards for sub-types of classification of expressive then defines six basic human emotions 'pleasure, sadness, surprisal, anger, hatred, fear'. Then sub-types of classification were classified based on emotion verbs and exclamations that express emotions directly emphasizing linguistic properties of Korean language. The results show that as follows. First, We showed on the basis of proper conditions of 'Searle' that expressive speech acts have proper conditions. Second, This study looks into direct speech acts and indirect speech acts through cases of use, and verifies that the direct speech acts of expressive in Korean language are exposed through exclamation that expresses human emotions. Indirect speech acts are expressed in statement, question and instruction forms while speeches of thorough, surprising, hatred and fear are expressed in 'statement' and 'question' forms. Third, responses with expressive were classified into agreement, disagreement, and rejection of response of which system was examined by means of usage. Responses with expressive were can be divided into agreement speech acts, disagreement speech acts, and rejection of response, and agreement and disagreement speech acts of response speech acts appeared in indirect speech acts taking the form of statements and expressive. Rejection of response appeared the form of question.

**[Key Words]**

expressives, emotion, speech-act, classification of speech, felicity condition, direct speech acts, indirect speech acts, request speech acts, response speech acts, exclamation

정 종 수 · 신 아 영

---



세종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학교 집현관 914호

E-mail : js1031@hanmail.net

aminsus@naver.com

접수 일자: 2013. 2. 6

심사 수정: 2013. 3. 5

게재 결정: 2013. 3. 12

---